금식기준이 애매합니다

(막2:18-20)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금식기준이 애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점심 때 혼자 식사를 하는데, 옆에 어느 회사 여직원들 대여섯 명이 함께 몰려와서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을래서 들은 게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 내내 하도 한 가지 얘기만을 하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긴가 들었더니, 애정남에 대한 얘기에요, 애정남.
'애정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에게 결별을 선언해도 괜찮은 기준, 이게 애매합니다.
여자가 자기 성깔 때문에 남자에게 결별을 선언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주는데, 제대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얘기 중의 하나가 '교회오빠'를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오빠'가 요새 유명한가 봐요.
첫사랑이 교회오빠였다,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마찬가지로 금식기준이 애매합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신다면 왜 하십니까?
그리고 안 하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금식과는 담을 쌓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금식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해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 금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과 같기 때문에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하는 것은 그 혼인집에 대한 결례일 수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절대 금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혼인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며 맛있게 먹어야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요, 혼자 인상 쓰고 앉아서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뺏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혼인풍습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신랑을 빼앗긴다.'
이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금식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준 중에 빼앗긴다는 말을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빼앗길 때 우리들도 대부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도원에 가끔 가보면 예외 없이 쓰여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글귀 아래서 하는 금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개가 다 불치병에 걸려 있다거나 또, 사업하는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결심을 가지고 금식에 돌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비슷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하여간 빼앗길 때 금식한다는 이 말씀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정기적으로 일 년에 네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치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 받아 나라를 빼앗긴 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이라든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뒤에 잔류민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그달리야가 살해당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말씀을 새긴 율법의 비석이 깨어질 때, 그 날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등 일 년에 네 번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의 경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제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 따져보면 빼앗기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경건과 헌신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근본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중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빼앗길 때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빼앗길 때인가 하는 겁니다.
건강을 빼앗길 때도 아니고, 돈을 빼앗길 때도 아니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때도 아니고,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세 번 국가적인 겸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북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부분 금식의 이유가 이런 것을 빼앗길 때인데, 예수님께서 진정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금식해야 될 때로 기준을 제시한 내용은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한, 잔칫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우리가 일상화 할 수 있는 천

국을 가져오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천국을 느끼면서 잔칫집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개의 주석들이, 뭐 세상에 나온 주석들을 제가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명하다는 주석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금식을 하라, 십자가사건이 일어났던 이천 년 전에 그때만 금식을 하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무지 다시금 금식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빼앗길 일이 없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까?
옛날에 흔기 놓친 노총각들이 과부를 보쌈해서 데려와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쌈해서 데리고 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여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보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부터 우리 마음이 보쌈을 당해서 그 신랑을 빼앗겨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수시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끊임없이 깨어져나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때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금식의 기준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금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잔칫집에서 금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날이 오는데 이때는 반드시 금식해라'
이렇게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러면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긴 상태에서는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다시 찾을 때까지는.
만약에 한 시간 만에 찾으면 한 시간만 금식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하신 뒤에, '생베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생베조각은 실올이 탄탄합니다, 그러나 낡은 베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찢어집니다.
이때 생베와 낡은 베를 같이 꿰매서 붙여놓으면 힘이 가해질 때 낡은 베 쪽의 옷이 찢어집니다.
또 포도주부대도 양가죽으로 만드는데, 오래 되면 가죽이 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두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낡은 가죽부대는 터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금식이라는 행동을 해야 될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행동강령을 내가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깁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B라는 회사로 가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B라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준거(準據)집단이라고 합니다.
'준거(準據)집단',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 될 이유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금식은 뭐였습니까?
빼앗길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빼앗길 때 금식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이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영역이 바뀐 겁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대칭구조를 눈앞에 그려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그 위로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준으로 아래로 성령과 대칭되는 지점에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 고기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고, 천국에 대칭되는 지점으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대칭구조 안에서 금식의 이유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 마음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갖고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길 때에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국가이건, 내 건강이건, 내 재산이건, 가정의 평화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판도가 바뀌어져서 금식을 하기는 하되, 마음이 위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아버지와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을 5감관으로 느끼며 세상과 교통하듯이 성령님이 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이 시간, 이걸 빼앗겨버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리에서 벗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빼앗겨져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빼앗겨져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육체가 처해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상황에 마음이 반응하고 있으면 예수님 빼앗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돈이 잘 안 벌립니다, 마음이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육체가 처한 이 땅 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반응할 때에 예수님 빼앗긴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밥 먹기를 중단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찾을 때까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마음이 안심하고 있다, 이것도 마음 빼앗긴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처한 상황이 잘되거나 못 되거나, 잘되면 잘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따져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왜 편안해하는지 안도하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따져보세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안도하십니까?
예수님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육체가 처한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한, 예수님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하세요, 금식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현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밥을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안심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상황에 근거되고 있구나!' 예수님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돈이 있음으로 해서 쓰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내 마음을 채워 만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돈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예수님으로 만족해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만족해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느끼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없을 때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자식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났다고 그래서 금식하지마세요,
몸에 병이 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 금식하세요, 예수님을 뺏긴 겁니다.

건강을 빼앗긴 것은 금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순교한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지는 마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금식하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혼인집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한번 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여간 마음이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황이 끝이 나고 혼인집 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내가 배부르기 전까지는 반드시 누구나 금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돈이 많아서 안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과 안심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 배불러서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며 예수님 때문에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밥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 결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은 십자가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수님 붙잡고 주기도문과 함께 연합시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져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 때문에 생긴 불안이 예수님 찾으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불안이 극복된다면 금식은 30분 만에 끝나는 겁니다.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예수님이 안 찾아진다면 금식하라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넌 지금 신랑을 빼앗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하라는 얘기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몸에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몸에 가시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이게 금식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것을 압니다.
저주도 벌도 아닙니다.

자, 금식의 기준 애매합니까?
분명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뺏겨서 천국에 마음이 들어가 잔칫집에 초대된 그런 상태가 상실되었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빼앗긴 상태를 예민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관측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빼앗길 때마다 금식함으로, 그 금식을 통하여 영원하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하나님을 먹는 이 세상적 금식, 육체의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